



채소 · 과일중 잔류농약 '물 · 세제' 세척 차이없어

■ 홍 보 부

■ 물로 씻을때

피망은 30%이상, 포도는 25% 이상, 시금치는 55% 이상의 농약이 감소하였다.

피망은 농약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포도는 물에 녹기 쉬운 에치오펜카브, 에토프로포스, 마라치온의 감소가 두드러졌다. 시금치는 페니트로치온의 잔존율이

잔 존 율

- 나크
- 크로르피리포스
- 다이아지논
- EPN
- 에치오펜카브
- 에토프로포스
- 페니트로치온
- 페노프가루프
- 마라치온
- 피리페노시쿠스(E)
- 피리페노시쿠스(Z)
- 퀴날포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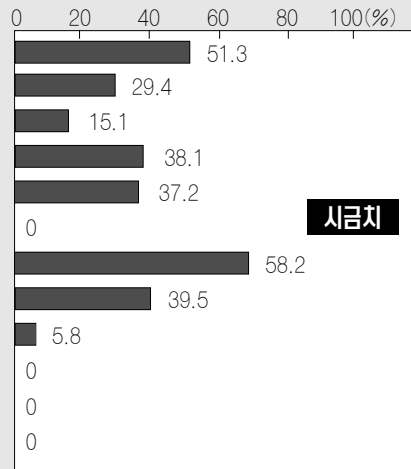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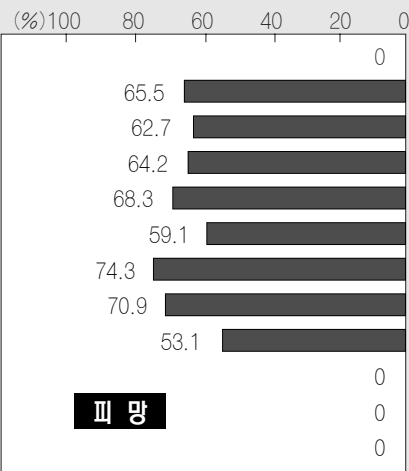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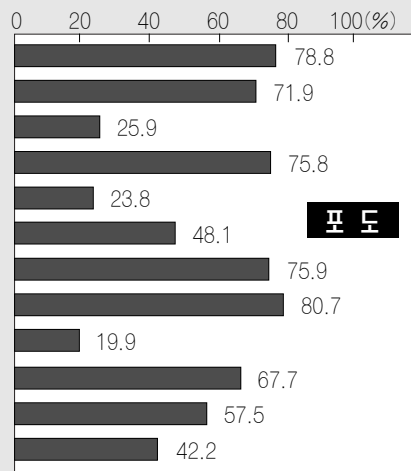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물에 씻었을 때



- 나크
- 크로르피리포스
- 다이아지논
- EPN
- 에치오펜카브
- 에토프로포스
- 페니트로치온
- 페노프가루프
- 마라치온
- 피리페노시쿠스(E)
- 피리페노시쿠스(Z)
- 퀴날포스



켰지만 이는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이라고
생각된다. 채소, 과일 모두 물로 씻은 것과
세제로 씻은 것과는 차이가 없었다.

아염 질산나트륨과 차아염 질산 나트륨 처
리에는 예상된 농약분해효과가 거의 나타나
지 않았다.

■데쳤을 때

감자는 대부분의 농약이 65%이상, 당근도
45%이상 감소하였다. 피망, 시금치도 물에
녹기 어려운 크로르피리포스와 이피엔에서
는 효과가 떨어졌다. 기타 대부분은 70%이
상 감소하였다(그림 2)

그림 2. 데쳤을 때

